

월요광장



정유진
코리아컨설팅 대표

팬데믹 이후 살고 싶은 도시

북유럽에 위치한 오슬로는 2019년 이래 ‘유럽의 녹색도시’, 세계 관광명소로 선정되는 등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소위 ‘힙’(hip)한 도시가 되었다. 이는 오슬로 시 중심부에 위치한 옛 부두인 비외르비카 지역에 “피요르드 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이룩해 낸 성과다. 2016년 개관한 오페라하우스와 다목적 고층 건축물로 구성된 바코드 프로젝트는 오슬로를 최첨단 건축 중심지로 부각시켰다. 이후 코로나 위기에도 몽크 뮤지엄, 공공도서관, 노르웨이 국립 박물관을 차례로 성공적으로 개관하였다. 그야말로 오슬로 수변은 보는 즐거움을 넘어선다. 모든 건축물에 친환경 건축 재료와 에너지를 적용하고 문화와 경제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에 용이하도록 치밀하게 계획되고 구현되었다.

앞서 언급한 밀라노나 오슬로의 눈에 띄는 도시 지형은 카를로스 모레노가 디자인하고 안네의 달고 파리 시장이 대중화한 ‘15분 도시’와 맥을 함께하며 마드리드, 에든버러,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보스턴 등 세계 도시에서 추진 중이다. 모든 일상 업무를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내에 갈 수 있는 곳에서 해결하게 만든다는 이 같은 도시계획이 무모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도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삶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부는 지난 1월 5일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크게 토지 용도와 용적률, 건폐율 같은 개발 밀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과 ‘N분(分) 생활권’ 조성을 위한 생활권 도

시계획의 제도화다. ‘N분(分) 생활권’은 앞서 언급한 세계에서 추진하는 “15분 도시”와 비슷하게 30분 생활권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성공한 도시들의 사례처럼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이 많다. 민관의 협력은 말할 것도 없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 계획, 도시 설계, 정책 결정에부터 사회·경제·문화·예술 등에 이르기까지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광주는 안 돼.” 광주로 이주하고 정주한 뒤 지난 20여 년간 가끔 광주에서 들어 본 말이다. 서울이나 부산, 대구는 되고 광주에서 안 되는 것들이 많다고 했다. 문화를 중시하는 유럽에서 오슬로는 변방으로 가끔 무시를 당했다. 유럽 사람들은 “오슬로는 안 돼! 거긴 뭘 피요르드와 가스 빼고 뭘 있냐. 문화적 볼거리도 없이 뭉뚱지 비싸기만 하고…”라고 말하곤 했다. 한테 이제 오슬로는 유럽에서 여행하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가 되었다. 중앙역을 걸어 나오면 맑은 공공 미술관에서는 아이들과 바닥에 뒹굴며 책을 볼 수 있고 세계적 건축물이 된 오페라하우스 앞에서 여름에는 북해에 발을 담그고 겨울에는 지붕 위에서 스노보드를 탈 수도 있다.

세계 도시들이 기후변화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할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맹렬하게 추진하고 있다. 광주도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갖추고 세계를 무대로 가 보고 싶은 도시,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수필의 향기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수필가

영산강의 봄

들과 민초들의 희망을 민족 서사시로 장엄하게 부활시켰다.

영산강은 처음부터 유쾌한 반발하고 버들강아지가 봄을 알리는 강은 아니었다. 섬진강에 가면 꽃여울(화탄) 달여울(월탄) 만수탄이 있다. 영산강 분류에서 살짝 벗어난 남평에 있는 돌꽃강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화순 도암에 운포 율포 화포마을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구름게 달개 꽃개, 고구 지명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마을이다.

이렇듯 고구어가 한자어로 바뀌고 다시 한자어가 수 없이 버림받고 채택되기를 거듭하는 사이 영산강은 제 본뜻을 잃고 무심코 흐르고 있는지 모른다.

곳곳에 강을 예성강 충신강 돌꽃강 드들강 금호강 동강 극락강 황룡강 문탄강 곡강 사호강 등으로 불린 강, 이런 다양한 고유명사를 품은 영산강이 대표 강으로 우뚝 서기까지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영산강은 흑산도의 영산도와 무관한 것은 분명하다. 흑시 영산은 꽃 영자를 쓰지만 금성산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강, 그림자 영자가 와전되지는 않았을까. 짝짝 숨어있는 마을 꼬두메가 꽃피듯 변해 영산이 된 것도 같고...

광주천이 운치와 멋이 없으며 ‘대추여울’로 부르자는 이들이 많아졌다. 대추여울, 어등산 노을이 수면 위에서 대추처럼 붉게 일렁이는 듯 시심이 일어난다. 영산강도 어쩌면 이런 아름다운 이름들을 여럿 품고 있었을 게다. 왜 녀석은 제 이름을 잊어버렸을까. 그리고 아무 상관없는 영산도가 자신을 오염시키는 데도 무연한

결까. 견훤이나 삼별초 또는 36년의 한스러운 역사에 스스로 맥이 풀린 것일까.

그런데도 상류와 하류 나름대로 멋을 간직한 자존심 강한 강이다. 수많은 이야기와 정자를 품고 있고, 드넓은 농토를 거느리고 있는 남도의 대동맥이다.

구진포 장어, 드들강 쏘가리, 극락강 메기탕, 충신강 붕어찜 등 맛집도 많았다. 그런데 하굿둑과 여러 보물이 들어서면서 물길이 막히고 고이면서 영산강은 시들 시들해졌다. 물론 홍수를 예방하고 물을 저장하는 일은 중요하다. 하나 매년 겨울 영산강 상류를 포클레인으로 평탄하게 고르는 사업은 중지했으면 좋겠다. 상류는 자연 하천 그대로 유지하여 강의 맛이 나는 멋진 경관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

깊고 얕은 곳이 생기면서 상하로나마 곡전이 되면서 물길이 생기고 맑아지며 물고기들이 사는 등 생태계가 복원된다. 즉 자연은 그냥 놔두면 스스로 예술 작품을 만든다. 적어도 화순 담양 상류 정도는 각 지천을 물길이 생기는 대로 두면서 영산강을 보존했으면 좋겠다.

어찌 이름이 중할까. 강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역시 강이다. 아름다운 강은 또다시 이름도 운술이나 여울처럼 빛날 터이다. 스스로 멋진 강이 되면 물고기도 새들도 곱려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도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먹도 감고 물장구도 치면서 자연의 일부가 될 것이다.

영산강의 봄은 수많은 지류가 제 모습을 찾고 제 이름을 되찾을 때 비로소 오지 않을까.

꿈꾸는 2040



김재식
위민연구원 이사
광주 동구의회 의장

‘고향 사랑 기부’로 마음의 고향을 만들자

저히 분석하고 지역의 전략을 마련하는 등 고향 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제도의 도입 목적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으므로 답례품은 지역 내에서 생산되고 제조·가공되거나, 지역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만들어진 제품이나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지역 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제품이나 그렇지 않으나에 따라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최대 여섯 배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지역 특산물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부금을 지역에 기부한 경우 ‘고향 주민 카드’를 발급하여 지역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찾아오도록 하여 ‘관계 인구화’를 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관계 인구란 지역에 새롭게 이주한 ‘정주 인구’나 여행이나 관광으로 방문하는 ‘교류 인구’가 아닌 지역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인구를 말한다. 지방 소멸의 돌파구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인구를 서로 뺏고 뺏기는 경쟁’이 아닌 ‘거주하지 않아도 관계 형성’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의 현안이나 행사에 남이 아닌 주민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향 주민 카드를 활용하지는 것이다. 법에 기초한 주민등록증과 달리 지자체가 자유롭게 결정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에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늘려 지역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고향 주민 카드를 등록한 사람에게는 지자체 홍보지 송부, 공공시설 이용 요금 할인, 축제 및 전통 행사 초청·

참가 안내 등 다양한 공유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줄 것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고향 사랑 기부제가 두 달째로 접어들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제시에 기부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13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고향 사랑 기부제에 대해 91.0%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고, ‘알고 있다’는 응답은 9.0%에 불과했다. 이 정도의 인지도로는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지급부타라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향 사랑 기부제의 취지와 목적, 참여 방법,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시스템 운영, 기부자 관리, 고객 응대 등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 인건비의 한계로 인력 충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고향 사랑 기부제와 같이 국가 정책 추진에 따른 필수 인력은 기존 인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원 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산정의 현실화를 통해 관련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향 사랑 기부제 도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고향 사랑은 말이 아니라 기부로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의 참여와 노력을 통해 지자체에 대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새로운 재원 확보를 통해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도움을 주고,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시립예술단 감독 절반 공식, 공연 차질 우려된다

광주시립예술단체의 예술 감독(지휘자) 절반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년 이상 공석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독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운영 부실과 작품의 완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립예술단에서 예술 감독은 연간 공연 계획 수립과 작품 제작, 단일 교육 등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자리다. 한테 광주문화예술회관 산하 여덟 개 예술단 가운데 국악관현악단과 소년소녀합창단, 극단, 오페라단 등 네 개는 현재 예술 감독이나 지휘자 자리가 비어 있다. 국악관현악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 전임 지휘자들이 재우축에 실패하면서 지난달 13일 이후 공석이다. 오페라단은 지난 2019년부터, 극단은 2020년부터 상임 감독 없이 작품에 맞춰 ‘예술 감독 초빙제’ 형태로 운영돼 오고 있다.

예술 감독 공백 사태에는 운영 주체인 광주문화예술회관의 안일한 대처가 한몫하고 있다. 대전·대구 등 다른 광역시의 경우 만료 3~6개월 전 구두나 공문으로 임기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지만, 광주문화회관은 최근 임기가 끝난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에게 이를 전해야 공문으로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고 한다. 더욱이 국악관현악단과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는 올해 신규 비상임 단일 공모가 마무리되는 4월 이후에나 공모 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낙장 대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올해 공연장 리모델링을 마치고 제2의 개관을 앞둔 상황인 터라 그 어느 때보다 공연계와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그만큼 수준 높은 작품으로 기대에 부응해야 할 상황에서 책임자의 부재로 공연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될 일이다.

예술 감독 공백의 장기화는 예술단의 기량 저하와 부실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 수년 동안 상임과 초빙제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오페라단과 극단도 그동안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장단점을 면밀히 살펴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조속히 확정해야 할 것이다.

노후 신도시 정비, 기반 시설 확보가 먼저다

정부가 잇그제 20년 이상 된 신도시 정비 사업에 파격적 특례를 부여하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내놓았다. 광주에만 대상 조건을 갖춘 사업지가 상무·하남·문흥·일곡·풍암 지구 등 다섯 곳이나 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별법은 전국 49개 택지지구 재정비 사업 지원을 위해 안전 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하고, 용적률을 300~5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한테 지자체들은 과도한 용적률 상향과 이주 대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개발 사업의 기본계획을 자치단체가 직접 수립하도록 하고 그동안 재건축 사업 시행자 몫이었던 이주 대책 수립의 무까지 지자체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주 대책을 지자체가 주도하기엔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한 부담 때문에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 자체를 꺼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용적률의 대폭 상향은 자치단체의

개발 이익을 보장해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주거 환경 측면에서 상하수도·도로 등 인프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려면 정부가 지자체의 이주 계획 수립 및 대규모 이주 단지 조성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세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질 경우 상하수도·공원·학교·도로 등 기반 시설의 재설계가 선행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광주 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주택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발 대상 지역의 주택 수요를 면밀히 따져 보고 필요하면 낡은 지역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시의 자족 기능과 주변 원도심과 균형 발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無等鼓

우리나라는 대부분 산성 토양이어서 뼈들이 쉽게 스러져 고분에서 인골이 출토되는 사례가 매우 드물다. 원삼국, 삼국시대 고분에서 발굴된 인골은 그만큼 소중하다. 뼈는 옛 사람의 삶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DNA 분석 등 첨단 과학 덕분에 매장 당시 나이와 질병, 음식 섭취 등 식생활은 물론 얼굴 복원도 가능하다. 최근 경남 조영동 고분군 출토 인골과 동물 뼈 분석에서 피장자의 신분에 따라 먹을 거리가 달랐다는 사실이 규명됐다. 2000년 전 높은 신분의 주 피장자는 꿩과 기러기 같은 야생조류와 상어, 방어, 복어 등 해양성 어류를 주로 섭취했다. 반면 낮은 신분의 순장자는 야생조류와 쌀, 보리, 콩류와 육상 초식 동물을 먹었다.

나주에서도 영동리 고분과 정촌 고분에서 인골이 발굴돼 분석이 이뤄졌다. 5~6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동리 고분에서는 지난 2006년 인골 아홉 구와 인골편 한 구가 발굴됐다. 이를 토대로 영산강 유역에서는 처음으로 마한 여성의 얼굴이 복원되기도 했다. 같은 고분에서 발굴된 남성과 여성, 어린 아이의 고인골

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혈연관계로 밝혀졌다. 뼈 분석 결과 이들은 벼, 보리, 콩 등을 주로 섭취했다. 육상 동물에게서 단백질도 섭취했다.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정촌고분 인골 분석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금동신발이 발굴된 정촌고분 피장자의 신분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에도 단백질 섭취량이 영동리 고분 피장자보다 낮았고 고분은 서로 잇닿아 있어 인골이 더 관심을 받고 있다. 육아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인골이 어떤 역사를 말해 줄지 자못 궁금하다.

/윤영기 체육부 부국장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